

北韓의 政治-政治文化

北韓政治文化의 形成과 그 特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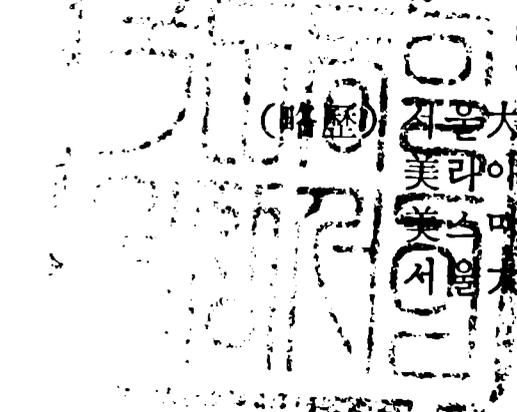
관용
리과) 2

-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査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II.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받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北韓政治—政治文化

北韓政治文化의 形成과 그特徵

研究執筆責任 李文雄



(略歷) 서울대학교 및 同大學院 社會學科卒
美拉아스대학교 인류학과(人類學博士)
美스대 소니안연구소 연구원
서울대학교 人類學科 助教授

刊行責任 李啓熙 (調査研究室 補佐官)

國土統一院 調査研究室

目 次

1 . 序 言	1
2 . 政治社会化過程	5
3 . 政治動員의 諸形式	13
4 . 教育과 教養事業	21
5 . 憎惡의 美德	27
6 . 「家族国家」로서의 北韓	35

1. 序 言

南北韓의 韓半島가 分斷된지 이미 한세대가 훨씬 지났다. 같은 政治·經濟 體制下에서의 단지 領土만의 分斷이라면 — 그간 兩側 間에 정상적인 社會·文化的인 접촉의 채널이 존재했었다면 — 우리는 南北韓社會의 異質性을 다룰 뚜렷한 근거를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南北韓은 相異한 政治·經濟體制下에서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고, 領土만의 分斷이 아닌 거의 완벽한 社會·文化的인 접촉의 不在와 그 結果는 民族의 再統一을 가로막고있는 하나의 거대한 장벽임이 틀림없다. 解放後 北韓에 투입된 새로운 外來文化特性의 하나로 共產主義이데올로기 및 經濟體制는 우리의 傳統文化와 끈임없는 相互作用의 結果로 오늘의 北韓의 社會文化體系 (sociocultural system) 를 낳았다. 人口의 構成面에서 본다면 北韓人口의 약 半數의 젊은 世代가 共產主義體制 밑에서 태어나서 성장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韓國의 傳統文化가 共產主義이데올로기로 채색되고 그 밑에서 성장한 젊은 世代가 北韓社會의 主導的인 人口層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은 民族의 分斷으로 인한 傳統文化의 異質化를 더욱 부채질하는 要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本論文은 共產主義體制下에서의 北韓의 政治文化의 形成과 그 特徵을 파악하려는 하나의 試圖이다. 世界의 모든 共產主義國家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現象으로, 北韓에서도 社會文化體系에서

政治的인 側面이 차지하는 정도는 압도적인것 같다. 住民生活의 모든 側面이 政治와 관련되어있고, 社会變動 내지는 社会發展의 가장 중요한 原動力(prime-mover)을 곧 政治에서 찾으려고 하는 共產主義者들의 哲學은 北韓의 政策에 관한 公式的인 文獻의 어디에서나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하나의 특징이다. 이것은 政治的인 힘(political force)이 곧 共產主義이데올로기를 住民들에게 주입시키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고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最近에 들어와서 社会科学分野에서 「政治文化」라는 새로운 용어가 흔히 사용되어오고 있다. 이것은 政治学, 특히 比較政治学分野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향이다. 「文化」의 概念이 多様な것과 마찬가지로 이 「政治文化」라는 용어로 많은 相異한 概念으로 사용되고 있다. 比較政治学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한가지의 예를 든다면, 알몬르와 버바(Gabriel A. Almond and Sidney Verba)는 한 社会의 政治文化를 “그 社会를 구성하고있는 사람들이 인식하고, 느끼고, 평가하고 있는 바의 政治体制”를 가리키는 用語로 사용하고 있다. (註①) 우리는 이 定義에서 社会構成員들의 그들

註① Almond Gabriel A. and Sidney Verba, The Civic Culture, 1963, Boston; Little, Brown and Co, P. 13참조. 이와 유사한 概念들을 다음 文獻들에서 참조: Gabriel A. Almond, “Comparative Political Systems,” in The Journal of Politics Vol. 18 (1956): 391-409; Sidney Verba, “Comparative Political Culture,” in Political Culture and Political Development, by Lucian W. Pye and Sidney Verba (eds.),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PP. 512-560.

의 政治体制에 대한 心理学的인 志向 (psychological orientation)이라는 主觀的인 측면에만 초점을 두고 있음을 발견한다. 그러나 「政治文化」가 이렇게 극히 한정된 概念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우리는 오늘날 北韓社會에서 진행되고있는 政治過程 (political process)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에 별로 도움을 얻을 수 있을것같지 않다. 이 論文에서는 北韓이라는 社會文化體系속에서의 한 下位體系 (sub-system)라고 할 수 있는 政治体制를 구성하고 있는 諸部分 또는 要素들간의 相互作用을 편의상 北韓의 政治文化로 간주하고 論議를 전개하겠다.

北韓의 社會過程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면 누구나 관찰할 수 있는 바이지만, 北韓의 住民生活에서 政治는 하나의 全體를 이루는데 빠져서는 안될 필수인 部分이다. 이것은 곧 社會의 構成員들을 全體로서의 한 政治體系에 연결시키고 묶는 가장 중요한 動員메카니즘이기도하다: 그러면 北韓共產主義者들은 「政治」라는 용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을까? 北韓의 公式的인 견해를 대변해 주고있는 <정치사전>에는 「政治」를 “일정한 계급이 사회에 대한 계급적지배와 그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註②) 여기에서 우리는 그들이 政治를 社會. 經濟的인 측면에서 住民生活을 통제하고 조직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動員메카니즘으로서의 政治는

註②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政治事業」이라는 용어의 사용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역시 <정치사전>에 의하면 「정치사업」이란 “ 모든 당원들과 군중에게 당정책과 제기된 혁명과업의 정치적목적과 의의, 그 수행방도를 알려주어 그들의 정치적각성과 혁명적열의를 높여 그들을 혁명과 건설에 조직동원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 혁명과업을 수행하려면 언제 어디서나 반드시 정치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워야 한다”고 못박아놓고 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政治」 및 「政治事業」이北韓의 社会過程 내지는 政治過程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러한 「政治」 및 「政治事業」이 실제의 住民生活에서 어떻게 作用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北韓의 政治文化에 접근하는 첩경이 될 수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우선 우리는北韓의 住民들이 「政治生活」을 통해서 共產主義이데올로기를 어떻게 內面化시키고 있는지부터 알아보기로 하자. 물론, 우리는 여기에서 幼兒期의 社会化過程이 성장한후의 政治的인 行爲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假定밑에서 論議를 시작한다.

2. 政治社會化過程

人間은 아무런 文化를 갖지 않고 (cultureless) 특정의 既存의 文化속으로 태어나서, 그속에서 성장하는 과정에 그 社會의 文化를 內面化한다는 命題는 人類의 知的傳統에서 널리 인정을 받고있는것 같다. 다른 말로 바꾸어서 말한다면, 共產主義社會의 成員들이 共產主義者들로 태어난것이 아니라 그 社會文化體系속으로 태어나서 社會化過程을 통해 퍼스널리티가 형성되고 共產主義者가 되는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北韓의 政治社會化過程 (political socialization process) 은 民衆들을 共產主義이데올로기의 틀속으로 끌어들이고, 그들을 國家的인 政治體系의 網狀組織에로 연결시키는 主要 메카니즘임을 짐작할 수가 있다.

北韓의 어린이들은 아주 일찍부터 政治이데올로기에 노출된다. 傳統的으로 生産單位로서의 家族의 기능은 이미 家族의 범위를 벗어난 生産組織에로 옮겨지고 말았지만, 그러나 아직도 社會의 基本的인 構成單位를 家族으로 간주하고 있는것 같다. 이점은 家族을 社會의 核心 또는 「細胞」라고 부르고 있는데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幼兒期의 子女養育은 주로 탁아소 및 유치원을 포함하는 전문적인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家庭이 子女들의 社會化過程에서 전혀 영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것이다.

共產政權當局者들은 全社會를 「革命化」시키는 첫 단계로 「家庭生活의 革命」을 불러 이르기를 강조해왔다. 傳統社會에서 家族

이 차지한 중요한 역할들은 社會主義建設에 장애물이 되고있다는 이유로 소위 「家族主義」를 儒敎的인 傳統의 잔재로 간주하여 이 文化要素를 제거해버릴려는 강력한 캠페인을 벌린바 있다.

그러나 그들은 父母와 子息들간의 긴밀한 家族關係를 파괴시키려는 조직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어떤 점에서는 孝의 觀念은 어느 정도로 잔존하고 있는 것 같다. 北韓의 民俗學分野의 機關誌인 「고고민속」은 孝를 文化遺産으로 보존해야할 美風良俗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註①) 한편으로는 儒敎的인 思想을 송두리채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子息에 대한 사랑을 “산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깊은” 것에 비유한것을 보면 유교적인 전통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표현인것같다. (註②) 또한 子息이 父母를 존경하고, 父母의 老後를 돌보는것은 도덕적인 의무이며, 만약 이러한 의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배은망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註③) 등은 家庭生活의 중요성을 아직도 어느정도 인정하고 있는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위의 인용들에서 반드시 하나의 但書가 첨가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된다. 즉 이러한 理想的인 父母와 子息간의 관계는 만약 그들의 父母가 反社會的인 행위를 범했을 때에는

註① 「고고민속」제 53호, P. 3 (1966년 11월호)

註② 「조선여성」 1962년 1월호, P. 22

註③ 이홍종著, 「결혼. 가정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 평양: 민청출판사, P. 67 (1958년)

결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경우에 자息들은 공개석상에서 父母를 여지없이 비판하고 공격해야하며, 또한 그렇게 해야만 黨과 政權에 대한 그들의 충성심을 인정받을 수가 있다.

이용가능한 모든 人力을 최대한으로 動員하여, 生産的인 활동에 투입하는 北韓의 政治体制下에서는 家事만을 전담하는 家庭婦人이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幼兒期的 子女를 가진 婦人은 혹시 가정에 生産活動에 참여하지 못하는 老人이 있으면 子女를 맡기고 직장에 나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탁아소에 맡긴다. 물론 탁아소는 婦人들의 노동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幼年期의 子女들에게 集團生活를 익히게하는 더욱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탁아소는 一日탁아소와 週탁아소가 있어서 아침 출근시에 아이를 맡기고 나가고, 퇴근시에 찾아가든가, 아니면 특수한 職種에 종사하는 女性들에게는 週日에는 계속해서 탁아소에 子女들을 맡겨 놓았다가 週末에만 찾아가는 것을 권장하기도 한다. 탁아소는 4세이하의 어린이들만을 수용하게 되는데, 4세가 넘으면 유치원에 입소시킨다. 탁아소의 日常生活은 엄격히 통제되어 평상시에는 부모가 찾아가서 볼 수도 없다. 젖먹이는 시간은 1년이하의 幼兒는 오전과 오후에 각기 두번씩, 1년이상의 幼兒는 각기 한번씩으로 규정되어있고 每回 30分씩 젖먹이기가 허용된다.

탁아소에서 主要 教育內容은 國家와 黨에 대한 忠誠心을 어린이들에게 심어주는 일이다. 이점은 유치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탁아소 및 유치원의 모든 재정적인 지원은 「수령」과 黨이 제공한 것으로 가르쳐지고, 식사때나 간식을 할때에도 「우리의 아버지, 김일성원수님 감사합니다」를 복창시킨다.

4세가 넘어 유치원에 들어가면 소위 「교양사업」이라고 불리우는 이데올로기 敎育의 작업은 더욱 활발하게 전개된다. 「수령의 참된 아들딸로 어린이들을 키우기」위해서 김일성의 어린시절에 관한 극히 歪曲된 歷史는 學習을 위한 聖典이 된다. 「노동신문」의 한 표현을 빌리면 “ 아버지 김일성원수님의 어린시절을 따라 배우도록 어린이들을 교양” 하며 어떤 유치원 들에는 “ 원수님을 따라 배우는 방” 까지 꾸며서 여러가지 사실적인 교재들까지 갖추고있다는 것이다. (註④)

敎養事業면에서 北韓의 当局者들이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고있는 문제들중의 하나는 새로운 世代의 젊은이들이 共產化以前의 社会生活를 경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共產主義者들은 韓國歷史의 과장되고, 歪曲되었으며, 심히 채색된바의 否定的인 측면에서 民衆을 動員하고 「革命的熱意」에로 자극시키는 主要原動力을 찾아내고 있다.

과거의 地主 및 權力層의 「착취」에 대해서 이들 젊은 世代는 실제로 경험한바 없기때문에 그들에게는 특히 政治敎養事業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北韓에는 생동한 자료들이 흔히 동원된다. 協同農場의 「민주선전실」에는 과거의 「착취계급」 내지는 역사전반의 否定的인 측면을 증오하는 그림들이 예외없이 붙어있고 이

註④ 「노동신문」 1970년 5월 9일자, P. 6

를 주제로한 학습토론회는 이제 日常生活過程의 한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北韓共產政權은 社會를 革命化시켜 經濟發展을 촉진시키는 수단으로 技術, 文化, 思想의 「三大革命」을 강력히 추진시켜왔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점을 둔것은 思想革命으로 어떤 점에서 人間改造事業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사상교양사업」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캠페인에서 우리는 그들의 自由意志의 哲學을 엿볼 수가 있다. “인민은 역사의 창조자”이며 “공산주의 교양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청산하고 그들을 공산주의 사상과 도덕품성을 소유한 새형의 인간으로 개조하지 않고서는 혁명과정의 성과적 수행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註⑤) 즉 사람들의 意識을 改造하는것은 社會, 文化의 계획적인, 또한 의도적인 變動을 가져오는 첫단계로 보고있다. 이것은 經濟的인 下部構造가 思想 및 이데올로기의 上部構造를 결정짓는 要因이며, 社會·文化的인 變動의 原動力이라는 共產主義의 기본적인 원칙에 모순되는 견해라고 하겠다.

集團主義에 대한 教育은 幼兒期에서 부터 시작된다. 탁아소 및 유치원은 이를 수행하는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어린아이들은 하루의 가장 많은 시간을 탁아소나 유치원에서 보내며, 거기서의 교육의 내용이 集團主義思想으로 담겨져 있다는 점은 北韓의

註⑤ 「청년생활」 1963년 12월호, PP. 26-27.

젊은 世代를 이해하는데에 고려되어야 할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國家 및 社會의 利益을 위해서는 個人은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해야 하는것이 요구된다. 集團的인 노동에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고, 個人의 자각적이고 헌신적인 노동은 곧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 참여하는 길이라고 가르쳐진다. 個人의 利益은 항상 全體의 利益에 종속해야 하며, 全體社會의 利益을 위해 진력하는것이 곧 個人의 利益을 가져오는 길이라는 것이다. 「자기 희생을 영예로 다른 사람에 대한 방조를 기쁨으로」라는 슬로건은 北韓이 集團主義敎育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즉 자기와 함께 일하는 다른 사람들은 곧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기가 앞서 가면 다른 사람을 따라오도록 도와주고 자기가 소속한 특정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앞서도록 모든 자기 희생을 참고 견뎌야 한다고 가르친다. 集團內에서의 몇몇의 탁월한 成員을 배출하는 것보다는 集團全體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에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思想敎養事業에서 가장 흔히 활용되고 있는 聖典들중의 하나로 「항일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를 들 수 있다. 여기에서는 日帝時期의 「抗日鬪士」들의 수많은 무용담으로 채워져있으며, 특기할 만한 것은 이 모두가 共產主義者들이 主動이 되어 일어난 것 처럼 歷史的事實을 크게 歪曲하거나 또는 가상의 사건을 조작하여 기술되어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여기서 이 「聖典」에 기록된 「歷史的事實」들의 사실여부를 논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宗教의 聖書들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기적적인 사건들의 사실여부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것들의 중요성은 바로 民衆들을 「革命傳統」에로
물고가는, 이끌어가는 하나의 메카니즘으로 사용된다는 점에 있다.
특히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은 어려서부터 이들 「유격대원들」의 集
團生活, 團結, 同志愛 및 제반 行動規範등을 典型으로한 새로운
「社會主義的人間像」을 따라 배울것이 강조된다.

北韓의 政治社會化過程은 또한 黨의 諸政策을 正當化하는 과정이
기도 하다. 日常生活, 특히 組織的인 集團生活에서는 소위 「黨性」
이 극히 강조된다. 黨性의 強·弱은 個人의 社會的인 政治的인
地位를 좌우하는 관건이 된다. 이 黨性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를
다음의 陳述에서 살펴보자.

“당성이란 黨의 정책과 결정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모든 힘, 필요하다면 생명까지 바쳐 싸우려는, 黨과
인민에 대하여 무한히 충성스러운 그러한 전투정신을 가리켜 말하
는 것입니다.” (註⑥)

즉 黨性은 黨에 대한 무한한 忠實性和 盲從性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생명까지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희생정신이 요구된다.

社會過程에서 發生될지도 모르는 온갖 갈등 및 불평·불만의 표
현은 물론이거니와, 일단 실행과정에 들어간 黨의 政策에 異議를
제기하는것은 黨性이 약한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統制되
고만다. 이러한 黨性은 北韓의 共產黨員(조선노동당원)에게만 적

註⑥ 김일성, 「공산주의 교양에 대하여」 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1960년) P.27

용되는것은 아니다. 물론 精粹의 열성분자만을 黨員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党性의 概念은 全体民衆에 확대되어 적용된다는 점은 그들이 党性을 말할때 거의 예외없이 「노동계급의 당성」으로 부르고 있다는 점에서도 잘 나타나있다. 즉 노동계급의 사람들이 모두가 黨員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에게 党性은 강요되고 있으며, 金日成의 革命思想이라는 소위 「당의 唯一思想」으로 무장할것이 기대된다.

「정치사업」은 北韓의 政治社會化過程에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중요한 측면이다. 이미 앞서서도 「정치사전」으로 부터 「정치사업」의 개념을 인용한바 있지만, 이것은 民衆들의 「정치적 각성과 혁명적열의」를 불러이르키는 작업이며, 모든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정치사업을 앞세워야 한다고 못박아놓고 있다. (註⑦) 다른 말로 바꾸면, 정치사업은 민중들로 하여금 혁명과업의 수행에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유도하는 작업이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라는 대전제 밑에서 수행되는 이 작업은 민중들 個個人을 「共産主義이데올로기의 囚人」으로 만드는 大衆操作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메카니즘이라고 하겠다.

註⑦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761

3. 政治動員의 諸形式

한 社會의 全體成員들을 소위 「唯一思想體系」로 묶어 政治的인 影響力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強力한 社會統制를 要한다. 北韓住民의 日常生活은 모든 側面에서 철저히 組織化되어 있으며 그들의 행동은 전반적으로 항상 監視의 대상이 된다. 北韓社會에서 운용되고 있는 社會統制의 한 중요한 메카니즘으로 우리는 「安全網」이라고 불리우는 民衆生活一般을 감시하는 組織網을 들 수 있겠다.

이제 여기서 간략하게 北韓의 農民生活에서 나타나는바의 安全網의 性格을 검토해보기로 하자. 都市生活에서도 職業的인 특수성에 關聯된 약간의 차이를 除外한다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두어야겠다.

農民들의 生活에 직접적으로 影響을 미치는 監視를 위한 「安全網」은 대체로 세가지의 종류로 구분된다. 즉 社會安全員에 의해서 집행되는 「情報網」, 黨員간의 「黨員監視網」, 그리고 「群衆監視網」의 세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앞의 두가지의 조직망은 정보수집 및 감시에 있어서 엄격히 비밀에 부쳐지지만 마지막의 것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

北韓의 內部的인 安保의 과업은 다른 나라에서의 警察機關에 해당하는 「社會安全局」의 行政채널을 통하여 수행된다. 이 社會安全局은 모든 레벨의 各行政單位에 支部를 두고있는 셈이다.

各 協同農場마다 社會安全員室이 있어서, 여기에는 한사람의

「책임안전원」과 몇 명의 「안전원」을 배치해 놓고 있다. 사실 이 안전원 들은 現役軍人들이며, 특히 책임안전원들은 현역장교라는 점은 특기할만하다. 특별한 경우를 除外하고는 그들은 다른 農場員들과 같이 平服을 입고 農場生活에 적극 참여한다. 住民生活에 대한 情報蒐集 및 監視의 과업은 이들 安全員들에 의하여 수행되는데 이때 그들은 몇 사람의 農民들을 工作助員 또는 提報者로 確保하여 다른 농민들이 모르게 임무를 수행한다. 심지어 이들 提報者들간에는 그들의 正체가 일체 秘密에 부쳐지기 때문에, 한 提報者는 다른 提報者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 그들은 각기 수집한 정보를 담당 안전원에게 직접 보고하며, 이 「정보망」은 주로 北韓政權의 政治 및 이데올로기의 路線을 지지하고 이를 正當化시키는 문제와 불명, 불만자들을 다루는데에 관심을 두고 있다.

安全員들은 農場員들과의 친숙한 사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경주한다. 비록 그들이 정상적인 農場員이 아니라 정보의 임무를 띠고 파견된 特殊要員들이지만, 農場員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때때로 農場의 작업에 參與한다. 때로는 農場의 老人들의 生日에 술을 선사하기도 하고, 農場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모임에는 자유롭게 참여한다. 情報蒐集의 특수임무외에 그들은 農場員들과 그들간에 발생 할지도 모르는 갈등을 해소시키는데 도움을 줄만한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1967년 北韓을 탈출하기까지 한 協同農場에서 현역장교로 責任安全員으로 파견되어 일한바 있는 한 사람의 말에 의하면, 安全員은 情報蒐集 뿐만 아니

라. 새로운 營農技術의 導入을 包含하는 모든 政府施策의 실행 과정
을 監督하는 책임도 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理由로, 사실
상 農場에 파견되는 安全員은 農業專門家로 訓練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은 그들이 農場員들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유지하고, 또한
農場내에서의 제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이들 安全員들은 農村人口를 全体政治体制으로 연결시키고
통합시키는 「周辺人間」(marginal men)이라고 불려도 좋겠다.
그들은 正規農場員이 아니면서도 農村에 상주하면서 中央에서 이루
어진 政策을 農村에 연결시켜주고, 都市文化를 農村에 심는다. 즉
그들은 都市와 農村의 中間에서 교량 역할을 하는 특수한 임무를
맡은 要員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黨員監視網」은 農場의 黨委員長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
農場의 核心黨員들중에서 情報要員을 선발하여, 委員長은 그의 要員
들에게 정보수집의 특수임무를 지시하고 감독하게 된다. 이 조직
망에 의하여 수집된 情報는 黨組織의 채널을 통하여 상부에 보고
된다. 農場生活에 있어서 黨員들은 모든 社會的인 또는 政治的인
活動의 核心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活動을 특별히 감시하
는 것은 소위 「革命課業」을 수행해나가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
된다.

「군중감시망」은 勞農赤衛隊와 人民班의 組織을 包含하고 있다.
이 兩者가 모두 정보사찰을 위한 전문적인 조직은 아니지만, 그의
사업 및 운영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勞農赤衛

隊는 北韓의 防衛體制를 강화하기 위해서 1959년 초에 처음으로 조직된 것으로, 이것은 아마도 戰後에 계속 주둔하고 있는 中共軍이 1958년에 철수하자 이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작업으로 간주된다. 初期에는 勞農赤衛隊는 都市, 휴전선부근 및 해안 지역에 집중적으로 조직되었으나, 今日에는 北韓社會의 모든 領域에 걸쳐 그 조직이 擴大되었고 防衛體制의 한 중요한 부분으로 되었다. 政治적으로 「不純分子」 또는 「反動分子」로 분류되지 않은 18세에서 45세까지의 男子와 18세에서 35세까지의 女子에게 赤衛隊에 가입할 자격을 준다. 女性赤衛隊員은 既婚일 수도 있고, 未婚이어도 좋다. 그러나 일단 첫 아기를 낳으면 그는 자동적으로 赤衛隊를 떠나게 된다.

協同農場내에서는 赤衛隊는 生産組織단위로 조직된다. 즉 각 농장은 赤衛隊의 一個大隊의 단위가 되고, 作業班은 中隊의 단위로 된다. 그리고 里黨委員會의 長은 赤衛隊의 大隊長을 겸하게 된다

赤衛隊는 농번기를 제외하고는 農場에서 정기적으로 軍事訓練을 받는바, 농한기에는 더욱 그 訓練이 강화된다. 비록 그의 主要目的이 國防力을 강화하는데 있지만, 赤衛隊는 民衆들의 生活을 통제하는 한 중요한 메카니즘으로서의 구실도 담당하고 있다. 例컨대 農場에서 발생하는 「反動的인」행위에 관한 모든 정보는 赤衛隊의 組織채널을 통해서 上部의 當局者들에게 보고된다. 이와같이 黨組織과 중복되어 조직된 이 勞農赤衛隊는 民衆들의 日常生活을 엄밀히 감시하고, 政策課業의 수행과정을 감독하며, 逸脫行爲를 막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있다.

各農場은 人民班으로 불리우는 여러개의 이웃집단을 가지고 있다. 서로 가까이 살고있는 이웃들로 조직된 이 人民班은 農場의 生産 組織과는 아무런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것은 다시 몇개의 더 작은 集團으로 쪼개져서, 각기 「五家組」라고 불리우는 平均 다섯 家口로 이루어진 말단조직을 구성한다. 이 五家組는 責任感이 강하고 충성심이 강한 幹部가, 이웃을 이루어 살고있는 몇 家口를 책임지고, 그들을 담당지도하는 하나의 組織으로 1958년 末에 시작된 것이다. (註①) 1971년까지 이 五家組는 「5호담당제」로, 그리고 거기의 指導者는 「5호담당선전원」으로 불리워졌었다. (註②)

물론 이 五家組는 반드시 다섯 家口로 구성되는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이상의 家口들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각 五家組의 長은 成員들의 일상생활의 제반활동을 감독한다. 그는 每日 모든 成員들 家庭마다 적어도 한번씩 들러서 그날의 활동상황을 확인하고, 이를 人民班의 班長에 보고하면, 班長은 다시 各組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종합하여 里人民委員會의 會長에게 보고한다. 五家組의 成員들은 자주 全員의 회합을 갖고 事故防止, “자발적인” 무로봉사노동, 社會·政治的인 狀況등을 討議한다는 것이다. 「노동신문」에 보도된 한 例에서 보면 이 五家組의 指導者들은 사람들에게 集團主義의 정신으로 利己主義를 뿌리뽑기를 강조함으로

註① 「노동신문」 1967년 9월 13일자.

註② 「노동신문」 1971년 5월 19일자.

사 「가정생활을 혁명화」하기를 기도하고 있다. (註③) 즉 이 경우에는 中學校 女教師인 한 組長이 그의 組의 각가정에 가서 모든 成員들에게 읽어야 할 숙제를 내어주고, 각 가정별로 5일에 한번씩 모여 家族員들이 숙제의 내용을 그들의 家庭生活과 관련시켜서 토론하도록 하게했다는 것이다.

위에서와 같은 조직적인 監視體制下에서는 農場員들의 日常生活은 만약 그것이 集團全体에 영향을 미칠만한 것이거나, 혹은 정치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면 일체 당국에 보고된다. 멀리 떨어져사는 친척을 방문한다거나 直系祖上 이상의 조상들을 위한 제사에 참여한다든가 하는 소위 「非生産的인 활동」은 엄격히 통제되고, 여러 가지 수단에 의해서 저지된다. 여행시에 糧卷의 발급은 住民들의 活動을 규제하는 한 방법이다. 주민들의 여행은 적절한 사유가 인정되는 한 허가되는데, 이 경우에 여행자는 그의 여행기간동안 소비할 식량을 農場当局에 반납하고 그 대신 糧卷을 받는다. 여행중에는 기차에서나, 숙소에서 이 糧卷을 제시하지 않으면 식사를 제공받을 수가 없다. 즉 이 糧卷을 확인함으로써 当局은 住民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누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있고, 또한 통제할 수가 있다.

住民들은 日常生活은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소위 「政治事業」에 노출된다. 農場의 작업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정치 사업들을 들어보자. 대부분의 農場에서는 뜨거운 햇볕을 막고 비

註③ 「노동신문」 上同

서 「가정생활을 혁명화」하기를 기도하고 있다. (註③) 즉 이 경우에는 中學校 女教師인 한 組長이 그의 組의 各가정에 가서 모든 成員들에게 읽어야 할 숙제를 내어주고, 각 가정별로 5일에 한번씩 모여 家族員들이 숙제의 내용을 그들의 家庭生活과 관련시켜서 토론하도록 하게했다는 것이다.

위에서와 같은 조직적인 監視體制下에서는 農場員들의 日常活動은 만약 그것이 集團全体에 영향을 미칠만한 것이거나, 혹은 정치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면 일체 당국에 보고된다. 멀리 떨어져사는 친척을 방문한다거나 直系祖上 이상의 조상들을 위한 제사에 참여한다든가 하는 소위 「非生産的인 활동」은 엄격히 통제되고, 여러가지 수단에 의해서 저지된다. 여행시에 糧卷의 발급은 住民들의 活動을 규제하는 한 방법이다. 주민들의 여행은 적절한 사유가 인정되는 한 허가되는데, 이 경우에 여행자는 그의 여행기간동안 소비할 식량을 農場当局에 반납하고 그 대신 糧卷을 받는다. 여행중에는 기차에서나, 숙소에서 이 糧卷을 제시하지 않으면 식사를 제공받을 수가 없다. 즉 이 糧卷을 확인함으로써 当局은 住民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누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있고, 또한 통제할 수가 있다.

住民들은 日常生活은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소위 「政治事業」에 노출된다. 農場의 작업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정치 사업들을 들어보자. 대부분의 農場에서는 뜨거운 햇볕을 막고 비

註③ 「노동신문」 上同

를 피하기 위해 들판의 여기 저기에 「포전선전실」이라고 불리우는 집을 지어놓고 있다. 그러나 그것의 가장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가 다양한 선전사업을 위한 장소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젊은 農場員들이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거기서 춤과 노래를 즐기기도 한다. 勞力의 총동원을 요하는 농번기에는 郡協同農場管理委員會에서 郡内の 각 농장으로부터 선출된 要員들로 이동연예단을 구성하여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서 각 농장을 순회하면서 낮에는 농장의 포전선전실에서, 그리고 밤에는 農場中心部에서 위문공연을 갖는다. 農場員들은 점심시간에 잠시나마 포전선전실에서 낮잠을 잘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개는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은 선전과 教養을 목적으로 채워진다. 즉 「선동원」의 직책을 가진 한 成員이 신문 잡지 또는 책을 큰소리로 읽고 나머지 농장원들은 이를 경청한다. 國內外의 움직임에 관한 문제들에 관해서 물론 관영의 메스·미디어를 통해서 보도된바를 중심으로 討論會를 개최하거나, 혹은 전문가에 의해서 새로운 農業技術에 대한 강의를 개최한다. 작업시간에는 농장의 중심부에 설치한 확성기를 통해 노래 방송극, 또는 작업지시를 방송한다. 하루의 작업이 끝나면 각 成員이 해낸 그날 작업을 평가하는 소위 「작업총화」가 벌어지고 각자는 그의 노력점수 기록장에 노력점을 기재받고 귀가하게 된다. 그러나 農場員들의 저녁시간은 또다른 社会, 政治的인 活動들로 채워진다. 때로는 오락을 위한 시간을 가질 때도 있다. 社勞靑(社會主義勞動靑年聯盟), 勞動黨, 농업근로자연맹, 勞農赤衛隊, 女盟(民主女性同盟) 등과 같은 政治組織들이 주로 農場의 生産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政治的인 활동들을 조직하고 있다. 거의 매일같이 이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모임을 개최한다. 때로는 人民班이나 作業班에서 행정 및 농사와 관련된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도 있다.

農場의 「구락부」는 저녁에 벌어지는 모든 정치, 문화, 사회적인 활동 및 오락활동의 中心이 된다. 보통 이 구락부는 학습실, 도서서관, 음악실, 기술선전실, 위생선전실, 방송실, 오락실 및 큰 모임을 위한 강당등을 갖추고 있다. 各農場에 한개의 구락부가 있지만, 큰 農場인 경우에는 집중주거지역이나 作業班에 각기 하나의 학습실을 두고 있다.

女盟에서 조직한 「어머니학교」는 주로 농사에 바쁘지 않은 겨울동안에, 좀 드물기는 하지만 다른 계절에도 학습회를 가진다.

이 어머니학교는 子女養育, 공중위생, 요리 및 老人들에 대한 올바른 태도등에 관한 것을 포함하는 主題들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보급한다.

거의 모든 農場이 有線放送施設을 갖추고 있어서 저녁식사시간에는 農場의 본부(協同農場管理委員會)에서 그날의 農場의 제반작업에 대한 집행상황을 방송을 통해서 알려주는데 여기에는 各農場員이 획득한 「노력점」과 各 作業單位의 生産量에 관한 통계등을 포함하고 있다. 農場내의 제반업무에 관한 사항외에는 이 방송은 평양방송에 연결시켜 놓는다. 이러한 有線放送體制와 出版物에 대한 北韓當局의 統制는 뉴스·미디어에 대한 완벽한 政治的인 통제를 가능케한다.

위에서 본바와같이 北韓에서 이용되고 있는 政治動員의 多様な 메카니즘들은 全体主義社會에서 기대되는 行動類型도 劃一的이고, 政治이데올로기에서도 劃一的이요, 창조적인 意見을 달리 함(dissent)을 허용하지 않은 「하나를 全体를 위하여」라는 劃一的인 社會主義的인 人間像을, 혹은 「唯一思想의 囚人」으로 만드는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4. 教育과 教養事業

教育은 한 社会文化体系(sociocultural system)의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部分이다. 이를 통해서 世襲 文化的인 傳統이 한 世代에서 다음 世代로 전해져 내려가며, 한 社会는 이 教育을 통해서 새로운 世代를 傳統의 틀속에 끌어드린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아무런 政治이데올로기의 오염없이 태어난 北韓의 젊은 世代가 教育을 통해서 「社会主義的人間」으로 형성되어 나가는 과정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教育制度의 構造的인 측면은 다루지 않기로 하겠다. (註①)

教育은 社会文化体系의 再建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인 하나로 보고있는것 같다. 過去의 歷史는 唯物論的인 法則性이 지배하였지만 이런 法則性을 확인한 다음에는, 즉 미래의 歷史는, 「人民들의 意志」에 의하여 창조된다는 것이 北韓指導層의 公式見解이다. 즉 사람들은 그들이 살 만족스럽고도 理想的인 社会를 창조할 수가 있으며, 人間은 곧 自身の 歷史의 독립적이고도 意圖的인 創造者(willful creator)로 간주하고 있다. 文化의 이러한 人間中心的인(anthropocentric) 見解는 北韓의 教育의 모든 측면에서 지배적임을 우리

註① 이점에 관해서는 Mun Woong Lee, Rural North Korea Under Communism: A Study of Sociocultural Change, Rice University Studies, Vol. 62, No. 1 (whole issue), 1976, pp. 95-100을 참조

는 교육에 관한 어떤 文獻에서도 흔히 발견할 수 있다.

北韓의 教育의 主要 테마(theme)는 아마도 “어떻게하면 人民과 國家에 봉사할 수 있을까?”를 가리키는데 두고있는것 같다. 北韓에서는 이제서 教育이 個人과 그의 家族의 威勢(prestige)를 표시하는 하나의 상징이 되지는 못한다. 北韓의 어린이는 누구나 4年間の 初等教育과 5年間の 中等教育課程을 거친다. 그이상의 高等教育은 어떤 個人이 원한다고해서, 또는 그의 家族이 바란다거나 경제적 으로 허락할 수 있다고 해서 획득할 수 있는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北韓政權의 계획에 맞추어서 선발된 젊은이들에게 주어진다. 그러므로 高等教育 및 그 이상의 전문교육을 받는것은 國家에서 “부름을 받는것”으로 간주된다. 즉 教育은 社會·政治·經濟의 諸分野에서의 需要를 메우기 위해서 國家的인 수준에서 조직적으로 계획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個人的인 관심이라는 要素는 전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現在의 教育制度下에서 훈련된 技能工, 技術者 및 科學者들은 「社會主義建設」에 필요한 곳에, 그리고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고 利用할 수 있는 곳에 中央政府에 의해서 一方的으로 배치된다. 즉 北韓政權의 教育을 위한 投資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의 낭비를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 그럴수록 個人的 意思 내지는 人權은 무시되고 全體의 한 部分으로서의 역할만이 강조된다. 그들에게는 高等教育을 받은 후에 각자의 직업분야를 自意的으로 선택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 父母 또는 家族도 또한 여기에 개입할 아무런 여지가 없다. 일단 家族을 떠난 (부모의 곁을 떠난) 子息

의 앞날은 전적으로 國家에 달려있을 뿐만 아니라, 子息들의 社會·政治的인 地位의 상승 또는 出世가 父母 및 家族의 威勢를 높이는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共產政權下의 北韓의 教育에서는 젊은이들을 「社會主義建設」을 수행할 책임감있는 「愛國的인 社會主義者들」로 바꾸고 (transforming) 훈련시키는 데에 크게 力點을 두고 있다. 學校는 共產當局者들에 의하여 「文化革命」의 基地로 간주되고 있다. 모든 수준에서의 北韓의 教育을 지배하는 原理는 「理論과 實踐의 統合」 및 「教育과 生産勞動의 統合」이다. 이러한 原理는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일하자」는 슬로간에 잘 표현되어 있다. 初等教育 이상의 모든 학생들에게는 正規學課의 一部로 生産勞動에서 參與가 필수적이다.

教育面에서 나타나는 과거의 것과 확연히 다른 한가지 측면을 教育方式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과거의 一方的인 注入式教育方式과는 달리, 현재의 北韓의 教育에서는 學生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크게 장려한다. 학과공부는 교사들의 강의에 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討論과 參與를 통한 學習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학교수업에서 각 學級班은 여러개의 小그룹으로 나누어져서 學生들로 하여금 돕고 集團的인 責任과 集團主義的인 態度를 조성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예컨대 성적이 좋은 학생은 자기의 그룹안에 있는 성적이 뒤떨어진 다른 학생들을 가르키고 그 그룹전체의 수준을 끌어올리게 하며, 각자의 노력이 전체의 수준을 가름하는 척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시키고 강조한다. 이런점들로 보아서 北韓의 教育

制度는 少數의 優越성을 개발하고 장려하기 보다는 集體的으로 知識의 수준을 높이려는 방향으로 계획되어 있는것 같다.

北韓의 教育은 모든 측면에서 民族主義가 지배적이다. 한글과 國史 — 그것이 現政權과 政治體制를 正當化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극히 채색된 것이기는 하지만 — 가 특히 강조된다. 共產政權 初期에 이미 漢字의 使用이 완전히 금지되었다. 젊은 세대는 漢字를 전혀 모른다. 漢字使用禁止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가지의 어려움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전에 사용하던 漢字로된 單語들을 대체하는 많은 새로운 한글용어들이 言語學者들에 의하여 고안되었다. 이로 인하여 이제는 南韓사람들에게는 거의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單語들이 많다는 점은 지적해둘만하다.

韓國史, 특히 近世史는 北韓의 教育에서 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것 같다. 階級間的 갈등 및 歷史의 否定的인 諸側面은 철저히 教育의 테마로 이용된다. 韓國史教課書들은 文化史上의 否定的인 측면들과 “새로히 발견된” 긍정적이고도 民族主義的인 측면들을 크게 강조하면서 다시 쓰여졌다. 물론 이것들은 北韓의 現支配層의 日帝下에서의 「反帝活動」들을 극히 神話的으로 채색하여 作成되었고, 또한 現政權을 正當化시키는 作業이었다. 뿐만 아니라 歷史의 否定的인 측면들, 例컨대, “小作人들을 착취한 地主를” “人民들을 희생시키면서 地位를 남용한 權力者들” “가난한 者들의 비참했던 생활.” 또는 이와 비슷한 題目들이 다시 쓰여진 歷史冊들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이것들은 사실상 거의 모든 政治的인 모

임에서나 學習회에서 주요 테마로 등장한다.

교수방식은 극히 實習志向的이다. 이것은 짧은 시일내에 더 많은 技能工을 훈련시켜 生産部門에 投入하려는 企劃으로 생각된다. 教師의 강의만에 크게 의존하는 것보다 學生들로 하여금 학습시간에 강의하게 하고, 보충적인 團體學習시간에 참여하게 하는 교수방식을 취하고 있다. 科學과 技術時間에는 실험과 工場에서의 실습에 크게 강조점을 두고있다. 뿐만아니라 社會 및 政治教育의 시간에는 歷史上의 실제적인 事件들을 다루면서 過去의 결함들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항상 無產階級의 편에 동정적인 해석을 加한다.

현재의 義務教育制度下에서는 모든 젊은이들은 적어도 10년간의 學校教育을 받으며, 學生들간에는 上級生과 下級生에 기초한 社會的으로 의미있는 구별은 없다. 특정의 學校를 졸업했다는 事實이 어떤 威勢를 가져오는 의미를 갖지는 않으며, 年齡과 学年에 기초한 權위의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學生들은 서로간에 “동무”로 부르고, 서로 동등한 關係로 취급한다. 아직도 학교와 学年을 표시하는 벤틀를 달고 있기는 하지만 상급생이든 하급생이든 서로 먼저 보는자가 인사를 먼저 하계끔 권장한다. 高等中學校(4年間의 初等教育을 마친후에 들어가는 6年制教育課程)의 첫 3년에 해당하는 中學班의 學生들은 公式的으로 少年團에 소속되므로 그들 특유의 인사법을 갖고있다. 즉 오른손을 왼쪽 이마위에 세우고 “준비하자!” 또는 “항상준비!”라는 구호를 외친다. 이것은 少年團의 선서에 있는 “共產主義 第一 예비군으로 봉사하도록 항상

준비하자!” 라는 文句에서 따온 것이다. 그러나 高等班(中學班이 후의 3年間)의 학생들은 전부 社勞靑에 소속된 관계로, 少年團과는 달리 그들은 軍隊식의 경례방법을 사용하며 “안녕하십니까?” 또는 “단결하자!” 라는 구호를 부친다.

이와같이 北韓의 教育 및 教養事業의 기초를 이루는 원리는 相互依存性(inter-dependence)과 友愛關係(comradeship)을 기르는데 있는것 같다. 어려서부터 北韓의 젊은이들은 組織生活 밑에서 자라난다. 家族의 범위를 넘어서, 성장과정을 따라 그들은 學校, 少年團, 社勞靑, 學習集團 및 其他의 특수활동을 위한 수많은 집단들의 成員으로 성장한다. 이 집단들의 成員으로, 그들은 집단과 社會全體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할것이 요구된다. 社會를 위한 個人의 노력은 영예로운 것으로 크게 평가된다. 北韓의 思想 및 政治教養을 위한 學校教課書들은 「革命의 英雄들」, 「愛國的인 自己희생의 事例들」 「日帝植民主義者들에 對항한 무용담」등으로 거의 채워져있다.

5. 憎惡의 美德

敎養事業에서 歷史에 나타난 否定的인 측면들을 강조함으로써 現世에서 이를 극복하고 「革命的인 熱意」를 불러이르키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하려는 점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바있다. 그러나 아마도 北韓의 敎養事業에서 가장 強力한 수단은 소위 「適에 대한 증오심」의 긍정적인 사용」인것 같다. 이것은 “敵을 사랑하라”는 基督敎的인 사랑의 概念과는 전혀 배치된다. 北韓政權當局者들은 이런 사랑의 概念은 곧 個人이든가 集團이든가 上位者가 下位者를 착취하는 制度的인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그들은 젊은이들에게 敵을 效果的으로 보복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共產治下의 北韓社會에 새로이 첨가된 이 概念을 우리는 알기쉽게 말하여 “누군가가 너의 한쪽뺨을 치거든, 그의 양쪽뺨을 모두 때려라”고 하는 원리로 해석해도 좋겠다. 敵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은 「社會主義的인 愛國心」과 現存하는 政治體制에 대한 신뢰감을 불러이르킬것으로 기대된다. 「日本軍國主義」 및 「美帝國主義」라는 敵은 北韓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고있는 대표적인 증오의 대상이다. 이제 「敵에 대한 증오심」이 北韓의 學校에서 어떤식으로 敎育의 수단으로 사용되고있는지를 「노동신문」에 나타난 한 例에서 찾아보기로 하자. (註①)

註①) 「노동신문」 1971년 3월 27일자. P. 6 참조.

여기에 소개하는 것은 판문郡 동창人民學校의 한 女先生이 경험한
 事例이다. 北韓의 모든 教師들이 경험하고 있는 바이지만, 그도 역
 시 새로운 世代의 어린 학생들에게 思想教養이라는 혁명과업을 수행
 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즉 그 어려움은 이들 어린이들이
 現政權의 증오의 대상이 된 「착취와 억압」을 실제로 경험한바
 없다는 사실이다. 비록 휴전선 북방에 인접해서 위치하고 있는 그의
 학교가 敵에 대한 증오심을 불려이르키는데 도움을 주었지만, 사실
 어린이들이 韓國史의 否定的인 측면들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이
 없어 그들을 共產主義의 이데올로기로 교육시키려는 그의 노력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랐다. 例컨대 "地主들이 小作民들을 어떻게
 착취하느냐?" 또는 "조선인민의 敵 美帝國主義" 등에 관한 主題로
 반복해서 설명해 보았지만, 학생들은 그것들의 중요성을 터득하는것
 같지 않았고, 성공적인 교육을 기대할 수가 없었다. 많은 시행착오
 끝에 그 女教師도 결국 특별히 준비한 그림들을 생생한 재료로
 사용하는것이 더욱 效果的이란 점을 발견하였다. 그가 사용한 가장
 效果的인 교재는 "신종철 아저씨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一連의
 그림들이었다. 여기에는 한 부유한 地主의 종으로, 때로는 그의 주
 인에게 매을 맞는 한 가난한 소년을 묘사한 그림들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학교의 정상수업의 일부로 가끔「美帝國主義」를 저주
 하는 모임들을 조직하였고, 때로는 학생들을 두편으로 나누어서 가
 상의 戰爭놀이를 시켰든바 이것들이 모두 적에 대한 증오심을 높
 여주고 학생들간에 단결심 또는 「동무의식」을 증진시켜주는데에

극히 效果的인 방법이였음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실제적이든 가상적이든 간에 적에 대한 증오의 감정은 곧 「社會主義的愛國主義」 또는 「社會主義的휴머니즘」을 심어주는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된다. 이리하여 北韓社會에서는 外部 또는 内部의 어떤 형태로든지 敵은 敎養事業 및 社會統合을 위한 긍정적인 수단으로 동원된다. 학교수업에서 심지어는 敎業時間에도 例外는 아닌것 같다. 학생들은 「敵을 증오하는 정신으로」 수학문제를 풀도록 가르쳐진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자. "도망치는 간첩을 두시간동안 추적한 끝에 ; 시속 4km로 달린 한 少年團員과 시속 8km로 달린 한 安全員아저씨가 그 간첩을 사로잡았습니다. 그少年과 安全員은 그 간첩을 잡는데 각기 얼마나 멀리 달렸을까요?" 이것은 수학시간에 주어진 한 문제이다. (註②) 이것은 適에 대한 증오심을 이용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더욱 생생하게 문제를 풀게 하는 산교육의 한 예이다.

外國 특히 美國에 대한 적개심을 이용하여 民衆들을 분발시키는 예들은 北韓社會에서는 풍부하게 찾아볼 수 있다. 1969年 12월 한 간첩에 의하여 납치되어 간 大韓航空의 여객기 탑승자 중의 한 기독교 선교사가 직접 보고온 (그는 그사건후에 65일만에 석방되었음) 바에 귀를 기우려보자. "어디를 가도 우리는 다리가 부러

주②) 「노동신문」 1971년 3월 27일 자, P. 6 참조.

진 美國人의 허수아비를 볼 수 있었다. 그 허수아비 위에는 「미제국 주의자들의 다리를 부러뜨리자!」라고 쓰여져있었다. 한번 나는 한 美軍의 허수아비에 칼로 찌르는 어린애들을 본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註③) 이와 유사한 경험이 1973년 가을에 20일 동안 北韓을 방문하고 돌아온 에드워드. 김에 의해서도 보고되고 있다. 즉 그가 방문했던 송림 유치원의 벽에 붙어있는 한 포스터는 「미국놈」이라고 쓰여진 美軍을 장난감총으로 쏘는 한 어린애를 그린 그림이었다. (註④) 이報告는 敵에 대한 증오심을 심어주는 작업은 유치원과 같은 社會化의 初期段階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결코 보지도 못한 가상의 敵에 대한 증오이지만 敎養事業의 목적을 위해서는 강력하고도 效果的인 수단으로 널리 동원되고 있다.

北韓의 勞動党中央委員會의 機關誌인 「근로자」(1964年10月号, P. 6)에 의하면 「제급적인 적에 대한 증오」의 정신은 人民에 대한 사랑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두가지는

註③) Shin, Jae-hoon, "Nightmare in Pyongyang," *Far Eastern Economic Review*, 67 No. 10 (March 5th, 1970): 17 에 인용되어 있음.

註④) Kim, H. Edward, "Rare look at North Korea" *National Geographic*, Washington, D. C. 146, NO. 2 (Aug. 1974): 252-277 참조.

함께 「共產主義휴머니즘」의 핵심을 이룬다는 것이다.北韓의 內的인 그리고 外的인 모든 敵에 대한 民衆의 인식은 效果的인 組織을 強化시킬 수 있다는 견해가 教育과 敎養事業의 모든 프로그램에서 지배적인 것 같다. 그들이 敵이라고 간주하고 있는 對象에 대한 批判은 「革命」에 도달하기 위한 路線을 바로 잡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제는 北韓의 生活樣式의 한 필수적인 부분으로 굳어졌고 制度化된 것 같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젊은 세대를 共產主義 이데올로기로 교양시키는데에 가장 어려운 문제의 하나가 그들은 民族史의 「어두운 측면들」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들이 共產化以前의 생활을 경험하지 않았고 戰爭을 실제로 겪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하여,北韓에서는 過去의 상처를 보존하여 젊은이들을 교육시키는데에 사용하려는 노력은 끈임없이 계속되어 왔다.北韓全域에 걸쳐서 세워진 수많은 博物館 및 記念館 (또는 記念對象物) 들은 바로 이런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이고, 教育的인 프로그램들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北韓을 방문한 사람들의 旅行記들에는 거의 모두가 過去를 보존하려는 — 간혹 극히 과장된 형태로 — 이런 종류의 노력이 아주 인상적이라는 점에 일치하고 있다. 「革命博物館」, 「미술박물관」, 「민속 박물관」, 「역사 박물관」, 「노동당 창전기념관」, 「조국해방 전쟁기념관」 등은 모두 이의 좋은 예들이라고 하겠다. 민속 박물관은 過去를 보존하려는 노력의 性格을 잘 보여주고

있다(註⑤) 이 박물관은 1956년에 설립된 것으로, 1970년에는 “일제 식민지통치하에서 독립을 위한 투쟁기기의 혁명적이고도 공산주의적인 생활양식을 기록해둔 박물관으로 再組織되었다. 전시실은 세부분으로 나누어져서 첫부분은 일제시대의 게릴라들의 생활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는 그들의 막사, 군사훈련, 조직적인 활동상황 및 行動規範 등을 보여주는 게릴라生活의 전반에 관한 전시로 채워져있다. 둘째 부분은 게릴라들이 먹은 음식과 그들의 건강상태에 관한 전시이고, 마지막 부분은 日帝下의 소년·소녀들의生活狀을 보여주는 전시물들로 채워져있다. 이 모든 전시에서 모형, 實物, 사진 또는 그림등 사실적인 묘사를 위한 모든 방법이 동원된다. 물론 여기에는 사상무장을 위한 자극으로써의 전시물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지, 史實的인 근거는 第二次的인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모든 다른 박물관이나 기념관들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테마이다. 英雄視되어버린 日帝下의 게릴라들의 活動은 北韓共產政權의 「正統性」을 합리화시켜주고, 民族史의 온갖 상처들은 民象들을 共產主義이데올로기의 囚人으로 끌어드리는 캠페인의 중요한 양념이 된다. 또 하나 지적해 두어야 할것은 이 모든 박물관 및 기념관들 — 그것이 民俗에 관한것이던 芸術에 관한것이던간에 — 은 필수적으로 民象들의 意識世界를 자극하고 「社會主義建設」의 理想에로 志向하게끔 유도하는 政治的인 테마로 구성되어있다는 点이다. 政治的인 색채를 띄지않은 순수한 사실적인 기록의 場으로서의 박물관이란 있을 수가 없고,

註⑤) 「조선중앙년감」 평양. 1973年판. Pp.264-266 참조

순수한 예술세계를 보여주는 美術館이란 존재할 수가 없다. 民族史의 否定的인 측면을 보여줄만한 중요한 것이면 무엇이든간에 보존되어 思想教養事業을 위한 산 教材로 이용된다. 戰爭期間에 노획된 유엔軍의 무기들 파괴된 전쟁 장비들은 극히 과장된체로 「보존」되어 野外教育場의 전시물로 사용되고, 심지어 전쟁중에 파괴된 도시에 상흔이 남은 채로 살아남은 建物は 「英雄建物」의 칭호를 부쳐서 보존되어 유엔軍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심볼로 사용되고 있다. 즉 이 모든것들이 「원수를 미워할줄 아는 마음」을 심어주는, 「社會主義的人間象」의 形成을 위한 필수적인 부분으로 확고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위와같은 대규모의 박물관 및 기념관들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소규모의 전시물은 北韓全域에 걸쳐 수없이 많다. 정상적인 수업과정의 한 부분으로 학생들은 이런 장소에로 수학여행이 마련되어, 소위 산 증거들을 교재로하여 교육을 받는다. 每年 특히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少年團은 옛 戰場 및 抗日계령라活動과 관련되었다는 소위 遺跡地들 에로 야영訓練을 받는다. 이런 곳들에서는 야영訓練을 받은 젊은이들이나 其他 一般訪門者들은 전문적인 案内員 (대개는 女子)의 안내를 받게되는데, 그는 여기에 관련된 歴史的인 事件들을 자세하게 또한 극히 劇的으로 표현된 형식으로 설명한다. 물론 이런 유적지나 박물관 및 기념관들의 안내원의 해설은 정확한 史實의 전달보다는 그 내용에 담겨진 政治的인 의미 (implications)가 극히 강조된다. 야영訓練期間에는 대체로 밤에 “우등불모임”이라고 하여 나뭇가지로 모닥불을 피우고 모두 그 주위에 둘러앉

아서 政治 敎養을 위한 會合을 갖는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프로그램은 多樣하지만 보통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를 읽고 토론한다든가 愛國詩를 읽든가, 革命歌를 부르고 때로는 抗日運動에 참가한 經驗이 있는 사람을 초빙해서 강연을 듣는 것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아마도 北韓의 政權當局者들은 이런 野營訓練이 思想敎育을 위한 캠페인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 같다.

이상에서 다룬 北韓의 文化過程에서 새로이 등장한 諸現象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하나의 分명한 것은 "憎惡의 美德"이라고 불려도 좋을 원리이다. 「人民의 敵」에 대한 증오심은 社會發展 및 經濟建設을 위한 「革命的인 열의」를 끌어내는 중요한 源泉으로 간주되어 肯定的인 價值가 부여된다. 소위 「社會主義體制의 優越性」은 民族史의 어두운 측면들을 부정하고 비판함으로써 확인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社會過程에 나타나는 阻礙 心理的인 不適應現象은 이러한 스키페 고트 (scapegoats) 의 創造를 통하여 中和시키고 발산시킴으로서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6. 「家族國家」로서의 北韓

全体主義社會에서는 일반적으로 政治指導體制를 받아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무자비한 박해의 對象이 되고, 權力鬭爭은 權力關係에서의 序列(pecking order)이 정해지고 한 指導者가 절대적인 權力을 장악할때까지 계속된다. 北韓에서 진행되어온 政治過程도 이의 例外는 아닌것 같다. 30余年간의 共產主義統治下에서 이제 金日成은 “수퍼·스타(superstar)의 地位에 도달한것 같다. 北韓을 방문한바 있는 한 日本人은 “北韓에는 그들 자신들의 神인 金日成이 있기 때문에 다른 神이 필요없드라”는 점을 관찰한적이 있다. (註①) 또한 1964年10월에 北韓을 방문했던 經濟學者 조안. 로빈슨女史도 이와 비슷하게 金日成은 “救世主(messiah)로서의 구실”을 하고 있드라는 점을 발견하였다. (註②) 北韓의 政治文化에 관심을 가진 學者들은 일반적으로 金日成을 둘러싼 個人崇拜의 경향이 뚜렷이 존재하고 있음에 同意하고 있는것 같다. 그러면 이제 아래에서 金日成個人崇拜가 어느정도로 北韓의 民衆生活에 효과적으로 침투되어 있는지를, 그리고 또한 어떤 要素들이 이런 새로운 文化的인 아이템의 形成에 관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註① Wada Yoichi “Kita Chosen no insho” Chosen Kenkyu
Geppo: 東京, No. 14, P. 23

註② Robinson, Joan. “Korean miracle,” Monthly Review
(1965. 1月) . P. 548

이제 北韓의 金日成崇拜는 頂點에 달하여 文字 그대로 神格化되어 있는것 같다. 한 어린애가 말을 배우기 시작할때부터 그는 소위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 의 이미지와 함께 教養을 받는다. 탁아소의 어린애들은 그들이 받는 음식도 “ 수령 ” 이 준것이라고 보육원으로부터 가르쳐지고, “ 수령 ” 이 내려준 은혜에 감사의 뜻을 표시하기를 요구받는다. 이러한 이미지形成의 과정은 學校教育의 全期間을 통하여 계속된다. 過去에 金日成과 관련되었다고 주장되는 모든 物的對象은 숭배되고 歴史的인 事物은 귀중하게 보존된다. 예컨대, 그의 出生地는 이미 北韓의 聖地가 되었고, 北韓全域에 걸쳐 그의 銅像은 무수히 세워져있다.

北韓勞動黨의 機關誌인 「노동신문」을 검토해보면, 1960年代 후반기에 들어서서 金日成個人崇拜의 현상이 점차로 강화된것 같이 보인다. 金日成에 관한 偶像崇拜的인 표현들이 이 기간에 대폭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즉 1960年代 초반기 까지만해도 메스·미디어에서 金日成을 표현할때 그의 이름앞에는 수식어가 많이 붙지않았다. 예컨대 “ 김일성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지도자들이 또한 대회에 참석하였다. ” (註③)는 등의 평범한 표현은 그 이후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게되었다. 여기에 1960年代 후반기에 나타난 두가지의 例에서 김일성이 어떤 수식어들로 표현되어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자. 즉 “ 절세의 애국자이며 불굴의

註③ 「노동신문」 1964년 2월 21일, P. 1

혁명투사이며 탁월한 영도자인 김일성동지" (註④) 라는 표현에는 수식어가 크게 증가되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金日成에 관한 기술에는 존칭어로 바뀌었다: "이것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고 간고한 조선혁명의 앞길을 개척하시면서 우리인민을 항상 승리와 영광, 행복과 번영의 길로 이끌어주고 계시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 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시며 국제공산주의 운동과 노동운동의 탁월한 영도자의 한분이신 4천만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라는 표현은 이의 좋은 예라고 하겠다. 여기에 다시 金日成우상화의 한 전형적인 예로서 조선작가동맹 시문학분과위원회의 「집체창작」인 서사시 「우리의 태양 김일성원수」의 마지막 구절을 인용해보자. (註⑤)

“아, 위대한 수령

우리의 태양 김일성원수!

그이의 혁명위업은

흘러가고 흘러가는 세기의 봉우리위에

찬연히 빛을 뿌리고,

그이의 불멸의 사상을 안고

사람들은 공산주의동산에서

영원한 봄을 누리리라!”

註④ 「노동신문」 1967년 4월 15일 P. 1

註⑤ “ ” 1969년 4월 15일 P. 3과 P. 6참조

이와같이 모든것은 金日成에게서 비롯되며, 또한 그에게 귀결된다.
 “ 절망과 비분만이 이 강산에 드리웠던 암담한 시기 우리에게 해성
 처럼 나타난 민족의 영웅, 그이는 분명: 겨레의 등대요 광명이었다”
 (註⑥) 는 표현에서도 우리는 金日成個人崇拜의 偶像的인
 측면을 여실히 찾아볼 수가 있다. 그러나 金日成의 영향권은 北韓
 에만 국한된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그는 “ 조선이 낳은 20世
 紀의 영웅으로 全世界의 혁명적인 인민들이 경앙하는” 또한 “ 全
 世界가 낳은 가장 위대하고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 이라는 주장에
 까지 이르고있다. (註⑦)

1960年代에 들어와서, 農業協同化가 끝난후에 金日成은 農村地域에
 들러 수많은 「 現地敎示 」를 한바있다고 알려져있다. 그중 가장 널
 리 알려진것이 1960年 2월에 있는 靑山里協同農場의 방문이었다.
 이 訪問은 「 청산리방법 」과 「 청산리정신 」으로 널리 알려진 한 새로운
 社會主義的經濟管理体系를 낳았다. 이것은 上部기관이 下部기관을 돕
 고, 상위자가 하위자를 도우며, 政治事業에 우선적인 관심을 돌리고
 大衆들로하여금 그들의 혁명과업을 수행해내도록 각성시키는 방법이다.
 (註⑧) 現地敎示를 위한 農場訪問을 통하여 最高指導者와 農場員들

註⑥ 「 노동신문 」 1970년 9월 26일 P. 4

註⑦ Munthe-Kaas, Harald, " Kim Il-sung: Superstar, " Far Eastern Economic Review 1972, Vol. 76, No. 23, P. 27 참조

註⑧ Kim Il-sung, Revolution and socialist construction in Korea: Selected writings of Kim Il-sung,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 1971, P. 95 참조

간의 빈번한 접촉은 이상숭배의 전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런 現地敎示를 위한 訪問은 事前에 잘 계획된 것이지만, 지도자와의 個人的인 접촉은 農場員들의 士氣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만약 그들의 農場이 잘 운영된다면, 그들은 그 지도자에게 충성심을 표시하게 된다.

共産化以前の 儒敎的인 觀念을 現在의 상황과 비교해보는 것은 흥미있는 일이다. 儒敎의 核心을 이루는 五倫 가운데서 父子關係와 君臣關係만을 생각해보자. 傳統的인 韓國社會에서는 父子關係가 모든 人間關係를 지배하는 主軸을 이루고 있었고, 君臣關係는 第二次的인 것이었으며 강력한 統合的인 要素는 아니었다. 共通의 祖上들로 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子孫들로 단합된 親族員간의 關係는 특히 강조되었으며, 特權層간에는 이름난 門中에 소속되었다는 것이 社會·政治的인 出世의 觀念이 되기도 하였다. 傳統的인 韓國社會는 그 社會構成面에서 볼때 수많은 親族集團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이 親族의 벽을 뚫고 全体人口를 하나의 긴밀한 全國的인 網狀組織으로 통합시킬만한 수단은 없었다.

共産治下의 北韓에서도 역시 父子關係는 중요한 要素로 남아있다. 孝도 하나의 美德으로 남아있고, 父母나 媧父母를 「잘 모시지 않는」 사람은 적절한 공개비판의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父子關係 및 其他 親族間的 紐帶는 經濟的인 社會的인 변동과 함께 사실상 적지 않게 弱化되었음이 발견된다.

이와는 반대로 이전에 약했던 君臣關係는 共産治下에서 金日成의

우상숭배의 형식으로 상당히 強化된것같다. 만약 우리가 이에 同意한다면 30 余年이란 비교적 짧은 시일안에 어떻게 이런 變容이 可能했을까? 만약 우리가 君臣關係의 強化를 父子關係의 弱장으로 본다면 이런 질문은 대답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親族關係, 특히 父子關係의 重要性이 弱화되었다는 점은 이를 代替할만한 강력한 統合메카니즘이 形成되지 않는 한 심각한 社会的인 동요를 유발할 것이다. 傳統的인 要素들을 새로운 社会秩序를 위한 모델로 사용하고 있는 점은 불명한 것같다. 6.25 戰爭이래로 北韓社会는 外來의 文化的인 영향으로부터 두꺼운 커튼이 쳐진 폐쇄된 体制(closed system)이였다. 戰爭의 후유증으로 닥쳐온 社会·政治的인 대혼란(chaos) 및 個人的인 喪失感(personal deprivation), 그리고 이에 따른 生活樣式에서의 수많은 變化등은 民衆들을 圖습시키는 한 救世主(a messianic figure)의 登場을 위한 길을 티워준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렇게 變化된 새로운 狀況에 적응하기보다 다른 어떤 方途가 보이지 않은 民衆들에게는 生活条件에서 나타난 어떤 형태로든지의 약간의 개선도 그들의 最高指導者의 공로로 들릴 수 있는 것임은 이해하기에 별로 어렵지 않다. 물론 이것은 北韓이 폐쇄적인 社会·政治体制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때에 더욱 그러하다.

共產治下에서 가장 널리 선전되고 있는 成就중에서 두가지는 金日成우상숭배와 관련해서 지적해들만 하다. 이것은 1966年과 1972年에 각기 이루어진 農業現物稅의 폐지와 10年制義務教育이다.

稅制의 폐지로 農民들은 형식상 모든 「租稅의 의무로부터 解放」 되었다는 것이다. 工業 및 다른 産業分野에서 얻는 利潤이 國家의 唯一한 財源이라고 한다. 물론 農産物과 工業제품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農産部門으로부터 비록 간접적으로나마 「稅金」 (비록 이렇게 부르지는 않지만) 을 받고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形式的인 現物稅制의 폐지 그 自体는 農民들의 士氣를 불리이르키는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음을 생각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10年制義務教育의 실시는 이를 위한 財源이 어디에서 얻을되든간에 모든 子女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직접적으로 學費를 부모가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民衆들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사는데 도움을 준것으로 간주된다.

共產政權下에서 이루어진 어떤 종류의 진전 및 개선이라도 그것은 「수령의 현명한 지도력」의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이것은 個人的인 成功을 祖上의 덕분으로 돌리는 傳統的인 관습과 극히 유사하다. 국가로부터 어떤 형태로든지의 支援도 「경애하는 수령」이 내려준 선물로 간주하고 「육친적인 사랑」의 표현으로 해석하고 있다. 君臣關係의 새로운 強化는 새로운 社會的인 脈絡 속에 옛날의 父子關係가 投射된것으로 우리는 간주하고 싶다. 親族關係가 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社會構造의 오랜 歷史가 없이는 濶情主義(a sense of paternalism)에 기초한 현재의 강화된 君臣關係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金日成은 사실 北韓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에 의해서 “아버지”로 불리워지고 있다. 유교적인 孝道의 개념으로는 父母의 사랑을 “산만치 높고 바다만치 깊은 것”으로 간주하였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최근에 와서 金日成의 은혜가 “산만치 높고 바다만치 깊다”는 표현이 北韓의 出版物에 자주 발견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註⑨) 젊은이들은 그들자신을 “노동당과 수령의 아들과 딸”로 간주하는 경향이 점점하고 있는것 같다. 例컨데 女子陸上선수로 이름난 신금단은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경기에서 400 m와 800 m를 우승하고나서 “노동당과 김일성원수님의 딸임을 자랑스럽고 행복하게 생각한다”고 말한바있다. (註⑩) 그러나 그의 親父가 현재 남한에 生存하고 있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시해야할 점은 最高의 指導者에 대한 忠誠心은 生物學的인 父母에 대한 傳統的인 孝의 概念에 우선한다는 점이다. 農場員들과 다른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한다. 물론 물질적인 利得은 이를 자극하는 要因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은 간과되어서는 안될것이다. 그러나 社會主義建設에의 참여는 곧 그들의 소위 「경애하는 수령」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해석하고있는 점은 우리들의 수목을 끌고있다. 近年에 와서 北韓의 메스·미디

註⑨ 「노동신문」 1966년 11월 25일자 P.3 ; 1968년 3월 10일자 P.2 ; 1969년 1월 28일자, P.2 ; 1969년 6월 1일자, P.2 ; 1970년 2월 25일자, P.5 ; 1971년 2월 12일자, P.4 등을 참조.

註⑩ 「조선여성」 1961년 8월호 P.30

어들은 정부의 最高指導者에 대한 의무감에 기초한 젊은이들의 모범적이고도 자기희생적인 활동들을 많은 예를 실고 있다. 사실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은 전통적인 孝의 美德보다 더 강해진 것 같다. 最高指導者의 神格化를 통한 社會統合의 樣式으로 미루어보아 北韓共產主義者들이 그렇게도 강력히 否定하는 儒敎思想은 아직 北韓에서는 약간의 變容된 形式으로 잔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지 달라진 것은 父子關係에 기초한 家族主義에서 君臣關係의 優位에로의 社會組織의 原理에 있어서의 變化이고 統合의 범위는 親族의 영역을 넘어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民衆과 最高指導者의 관계는 꼭 親族間의 관계같아서, 현대의 共產主義體制의 北韓을 한 「家族國家」(family-state)로 부르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共產主義이 데올로기를 굳건히 심으려는 열면 노력에도 불구하고 北韓의 文化는 儒敎的인 傳統의 강한 흔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위에서도 살펴본바와같이 「수령」의 역할은 傳統社會에서의 한 家庭의 家長의 역할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절대적인 權威를 행사하고 그가 바로 國事에 대한 「모든 지혜의 源泉」이며, 國家의 운영은 꼭 한 家庭의 운영을 닮았다. 傳統的인 韓國社會에서의 家族과 親族의 운영을 지배하였던 原理들은 이제 國家라는 單位에로 연장되어 적용되고 있으며, 傳統的인 祖上祭祀는 金日成個人우상 숭배의 形式으로 살아남아 있다.

共產主義支配下의 北韓에서 나타난 이런 變容은 우리들로 하여금 유명한 儒學改革主義者인 朱熹의 꿈인 한 새로운 儒敎社會를 생각

나게 된다. 이 새로운 유교사회에서는 “支配者는, 꼭 한 家庭의 家長이 그러듯이, 中央集權化된 政府의 우두머리로 육친적인 사랑으로 다스리고, 백성들은 이와 반대로 의무감에서 그에 순종할 것이다. 그러므로 각 個人은 가정에서는 아버지이고, 이와 동시에 支配者의 한 忠僕이 된다.” (註⑪) 지난 30餘年間に 北韓에서 전개된 文化過程은 아마도 政治指導者에 대한 강력한 충성심을 통하여 표현된 孝의 연장으로 統合된 하나의 새로운 유교적인 사회 즉 「家族國家」에로의 變遷으로 要略되어도 좋겠다. 어떤 점에서는 朱熹가 꿈꾸었던 사회가 바로 共產主義 北韓에서 形成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註⑪ Kang, Thomas Hosuck, The making of Confucian societies in Tokugawa Japan and Yi Korea: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behavior patterns in accepting the foreign ideology, Neo-Confucianism,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Washington, D.C.: American University, 1971, P. 277.